

2. 절차사무 주요 개선사항

-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형태 변경(2차원 바코드/QR코드 ⇨ 1차원 바코드)

변경 전	변경 후
	
QR코드	1차원 바코드

-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(선거일 투표마감시각 ⇨ 선거일 후 30일)
-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공개 확대(사전 신청 후 업무시간 중 열람 ⇨ 시·도위원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전 신청 없이 24시간 열람)
- 심사·집계부 수검표 실시(계수기로 확인 ⇨ 수작업으로 확인 후 계수기로 재확인)
-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(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적용)
-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시까지 원본 보존
- 잔여투표용지 관리 강화(개표진행 공간과 명확히 분리, CCTV 등 보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등)

3. 공정선거참관단 운영

- ▶ 중양선관위는 국민에게 투·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학회가 주관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▶ 공정선거참관단은 정당,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,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, 투표, 개표 등 선거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게 됩니다.
- ▶ 또한, 참관단 활동을 언론의 현장취재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.

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자세

“

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, 그 과정은 선거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.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.

<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 신년사 中 >

”

“

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,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.

<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 제21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 中 >

”

2025. 6. 3.
제21대 대통령선거

주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
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1. 주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설명

투표용지

Q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인을 인쇄날인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?

A 아닙니다.

-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는 것은 해당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작성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행위로, 인쇄날인 하더라도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 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.
-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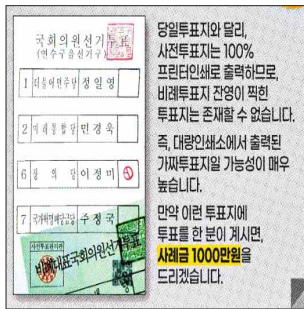
※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없고,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직접 인쇄하고 회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교부하는 것에 시간이 소요되어, 선거일 투표 대비 대기시간 및 혼잡도 증가



Q 투표용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용지(일명 '배춧잎 투표지')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?

A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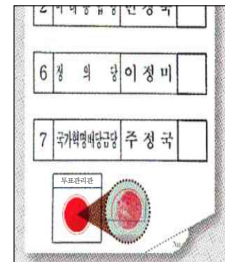
-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는 백색,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.
-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.



Q 제21대 국선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(일명 '일장기투표지')가 나왔는데,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 아닌가요?

A 아닙니다.

-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된 투표관리관 사인의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, 잉크 부족으로 선거인 본인 확인용 스탬프(인주)를 사용하여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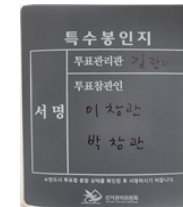
투표함

Q 투표함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나요?

A 아닙니다.

- 특수봉인지는 피착물(투표함 등)에 잔여물이 남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'잔류형'과 '비잔류형'으로 나눌 수 있으며, 통상적으로 피착물의 재사용 여부 등 목적·환경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는 바, 우리 위원회는 투표함 재사용에 따른 점검·보수 등을 고려하여 '비잔류형' 특수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위원회가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(OPEN VOID)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투표함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를 떼어내 다른 투표함에 부착할 경우 훼손 표시를 통해 투표함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특수봉인지에는 (사전)투표관리관, (사전)투표참관인이 직접 서명하고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며,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뒤 제3자가 대리 서명할 경우 필적 대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부착 시



봉인지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

탈착 시



봉인지에 훼손 표시(OPEN VOID)가 나타난 모습

투표지분류기



Q 개표 시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통신을 이용해 해킹이 용이하고 조작이 가능한가요?

A 아닙니다.

-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을 보조하는 기계장치로 통신장치(랜카드)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으므로, 인터넷을 통한 숫자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.
- 또한,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고 있으며, 개표의 전 과정을 개표참관인이 참관하고 있습니다.

개표결과



Q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투표 결과가 다른 것은 조작 아닌가요?

A 아닙니다.

-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·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.